

서울아산병원

VOL.626 2020. 4. 1

일품 한식당 '한강'

한우 사골을 12시간 우려내어 깊은 맛을 선사하는 한식당 한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비빔냉면



8,500원

꼬리곰탕



16,000원

위치: 동관 지하 1층

영업 시간: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휴무일: 4월 4일(토), 4월 11일(토), 4월 15일(수), 4월 18일(토), 4월 25일(토)

추천 메뉴: 설렁탕(8,500원), 만두설렁탕(10,000원), 갈비탕(13,000원), 꼬리곰탕(16,000원)

단품 메뉴: 왕만두(6,000원)

계절 메뉴: 비빔냉면(8,500원)

문의: 02-3010-6398

※ 외래식당이 포장판매, 직원 10% 할인

(사원증 또는 사번 제시 후 이용 가능,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 적용)

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4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관 6층 직원사무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3월 16일 문을 열었다. 새 직원사무실은 진료 공간을 넓히고 처치실을 따로 마련하는 등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사진은 리모델링을 마친 직원사무실 모습.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이재원 교수, 아산의학상 수상

홍부외과 이재원 교수가 제13회 아산의학상을 수상했다. 아산의학상은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뜻을 이어 받아 기초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뤄낸 의과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됐다. 이 교수는 부정맥 수술, 관상동맥과 심장 판막 수술, 심장이식 등 성인 심장 질환 수술법 발전과 수술 시 절개부위를 줄이는 최소침습수술 도입을 주도하며 국내 성인 심장질환의 외과적 치료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초의학 부문에서는 이원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수상했다. 왼쪽부터 주영석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젊은의학자 부문), 이원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기초의학 부문), 정몽준 이사장, 이재원 울산대 의대 홍부외과 교수(임상의학 부문), 이용호 연세대 의대 내과 교수(젊은의학자 부문)의 부친 이현철 씨. (관련기사 3면)

함께 만드는 뉴스 매거진

이름: _____
소속: _____
전화번호: _____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봉사활동 이야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0년 4월 14일(화)

발표
제628호(2020년 5월 1일 발간)

02 NEWS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 다해

08 사람 & 이야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12 사랑시·행복구·동행동 AMC 이전엔 몰랐던 것들

22 나무야 나무야 봄을 알리는 벗나무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 다해 코로나19 병원 모든 곳에서 끝까지 최고 수준 경계 유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병원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나는 직원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진단검사의학팀 이지민 사원이 선별진료 대상 환자들의 호흡기 검체에서 채취한 핵산을 유전자증폭기에 넣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최고 수준의 경계가 일상이 됐다. 장기화에 따른 피로가 크지만 우리 병원은 최선의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덕분이다. 환자를 대면하는 곳은 물론이고, 직접 마주하지 않는 곳에서도 직원들의 분투는 이어지고 있다. 진단검사의학팀은 의심 환자의 검체가 이송돼 오면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검사를 실시한다. 환자의 코와 목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한 후 분자진단을 위한 감염병원체 유전자를 증폭시킨 뒤 특이유전자의 증폭여부에 따라 확진하는 방식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야 감염진단에 따른 치료 방침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뤄지고 있는 선별진료 일정에 맞춰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주말·야간 근무도 하고 있다. 회당 6시간 걸리는 검사를 하루에 5~6회 실시한다. 지난 1월 19일 이래 지금까지 실시한 코로나19 유전자 검사가 1만 8,146건(3월 25일 기준)에 이른다. 진단검사의학팀 이승택 유닛 매니저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맞아 쉽 없이 검사

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및 결과 보고를 위해 함께 단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감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말했다. 전화예약실 직원들은 모든 예약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위험 시설을 최근 방문한 적이 없는지, 발열·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통화량을 소화하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일정 조율을 돕는다. 문진 시간이 추가돼 통화당 응대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숨돌릴 틈이 없다. 원무팀, 건강증진센터 직원들도 기존 업무와 외래 및 검사 예약자에 대한 사전 확인을 병행하며 선별진료 체계의 1차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직원들이 병원 출입구 및 외래 접수 단계에서부터 모든 내원객을 대상으로 발열 모니터링과 문진을 실시해 증상, 방문력을 확인하며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원무팀 이주환 유닛 매니저는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예약단계에서부터 고위험군 환자를 철저히 분류해 진료 현장의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 상황실을 운영하며 병원 정책과 주요 상황별 매뉴얼을 시시각각 공유하고 있는 진료지원실과 감염관리실, 마스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비품과 소모품을 발빠르게 조달하고 있는 자재팀, 방문력이 있는 환자들을 선별진료소까지 동행 안내하며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보안관리팀, 직원식당 좌석 배치를 일렬로 변경하는 등 안전한 식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후생사업팀 등 병원 모든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 덕분에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는 중이다.

제13회 아산의학상 이원재·이재원·주영석·이용호 교수 수상 정몽준 이사장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이 3월 19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수상자로는 ▲기초의학 부문에 이원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임상의학 부문에 이재원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 교수 ▲젊은의학자 부문에 주영석 카이스트 의과대학원 교수와 이용호 연세대 의대 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기초의학 부문 수상자 이원재 교수와 임상의학 부문 수상자 이재원 교수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 부문 수상자인 주영석 교수와 이용호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상자 부부만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축소 진행됐다. 정몽준 이사장은 “저희 선친께서는 1977년에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고, 저희 재단은 그 뜻을 이어 받아 2007년에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라고 시상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전한다. 오늘 수상자 네 분

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자세는 많은 의과학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이원재 교수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로 질병치료와 영양실조에 의한 저성장증 어린이 성장촉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유익한 장내세균이 생체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과 장세포가 나쁜 세균을 제거하고 유익한 세균을 보호하는 기전을 최초로 규명하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재원 교수는 상처는 작고 회복은 빠른 최소침습심장수술법을 개발하고, 로봇심장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승모판막 성형술과 만성혈전 색전성 폐고혈압 수술을 집도하면서 우리나라 심장질환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주영석 교수는 일부 폐암이 흡연과 무관하게 폐 세포 내 염색체의 파괴적 변화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암의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연구 업적을 인정 받았고, 이용호 교수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하면서 지방간의 새로운 기전과 치료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7년 아산의학상을 제정했다.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의학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의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암병원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 자체 개발



3월 23일 열린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암병원이 우리 병원에 등록된 암 환자 40만 명 이상의 유전체 정보와 수술, 진료, 항암제 처방 등 임상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을 자체 개발해 최근 임상 적용을 시작했다. 2019년 병원발전기금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된 정밀의료 통합 플랫폼은 진료용과 연구용 2가지로 제공되며 임상 및 유전체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연

구자가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유전체정보와 임상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환자 1명에 대해 우리 병원에서 해당 환자가 시행한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임상 정보와 유전체변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암 치료의 시행여부, 특정 유전체변이 보유여부 등 다양한 조건으로 그룹을 생성하여 분석할 수 있고, 생성된 그룹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연구에 필요한 조직세포자원센터 검체의 분양을 신청하는 등 실물 인프라와 아산생명과학연구원 통합연구관리시스템(ARIS)과 같은 온라인 인프라를 연계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김태원 암병원장은 "국내 의료진의 경험과 플랫폼 개발 기술로 자체적으로 개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암연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암정복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탐색과 항암제를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얼굴 만지는 습관' 인공지능이 잡아낸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왼쪽 두 번째)와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 연구원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시연한 모니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얼굴을 만지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와 의료영상지능실현연구실은 손으로 얼굴 만지는 동작을 91%의 높은 정확도로 감지해 알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얼굴 만지지 마세요/손 씻으세요 (DONT/WASH)'를 개발해 최근 배포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해 영상 행동 분류에 탁월

한 성능을 입증한 '3D 신경망'을 사용했다. 이 신경망은 400여 가지 행동 영상 데이터를 이미 학습해 둔 상태로, 이번 연구에서는 얼굴 만지는 것과 관계된 동작 11가지를 추가로 학습했다. 얼굴을 만지는 행동은 ▲마스크 쓰기·벗기 ▲코 만지기 ▲턱 괴기 ▲눈 비비기 ▲머리 쓸기 ▲안경 만지기 ▲전화 받기로 8가지였다. ▲컵으로 물 마시기 ▲휴대전화 만지기 ▲키보드·마우스 사용하기 3가지 동작은 인공지능 모델이 걸러야 할 행동으로 정의했다. 사람이 얼굴을 실제 만졌을 때 인공지능 모델이 경고 메시지를 띄운 비율은 91%였다. 물 마시거나 전화 받기처럼 사람이 얼굴 쪽으로 손을 올렸지만 얼굴에 직접 대지 않은 동작도 잘 구분해냈다. 이 경우 알림 메시지를 띄우지 않은 비율은 84%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깃허브(github)' 사이트에서 실행파일을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좌주간부 심장혈관 질환 스텐트 시술, 수술과 10년 비교 결과 차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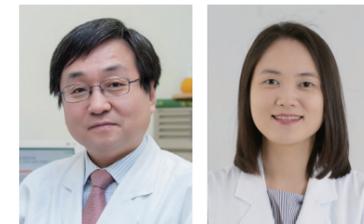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부교수

심장내과 박승정 석좌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부교수팀이 좌주간부질환에 대한 스텐트 시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의 예후를 10년간 장기 비교한 결과 치료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좌주간부는 심장근육에 혈관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이다. 이 부분에 노폐물이 쌓여 좁아졌을 경우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과 심혈관 스텐트 시술 중 어느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 세계 심장학자들이 오랜 기간 열띤 논쟁을 펼친 주제였다. 환자의 예후를 장기 추적해 분석한 이번 연구결과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이다. 연구팀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의 13개 연구기관에

등록된 좌주간부 질환자 1,454명 중 무작위로 300명의 스텐트 시술군과 300명의 수술 치료군을 뽑아 시술과 수술의 결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관상동맥질환증 가장 고위험군인 좌주간부질환에서 스텐트 치료를 잘 하면 10년이 지나도 과거 표준치료였던 관상동맥 우회수술에 비해서 전혀 뒤쳐지지 않음이 확인됐다. 시술 및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이나 심근경색 혹은 뇌졸중 발생비율은 스텐트 시술군에서 18.2%, 수술 치료군에서 17.5%였다. 고령 등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비율은 스텐트 시술군에서 14.5%, 수술 치료군에서 13.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박승정 석좌교수는 "10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좌주간부질환에 스텐트 시술과 수술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개흉수술이 위험한 경우 스텐트 시술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전 세계 심장 분야 대표학회인 미국심장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3월 30일 온라인 중계로 발표됨과 동시에 심장 분야 최고 저널인 「써큘레이션」에 게재됐다.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 청소년, 다중 담배 사용자 되기 쉽다



조홍준 교수 강서영 임상전임강사

궤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로 만들어진 전용 제품을 전자 장치에 장착해 사용하는 가열 담배이며 전자담배 보다는 일반 담배에 더 가깝다. 일반 담배를 흡연하는 청소년이 금연을 위해 궤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다중 담배 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금연 성공률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국제진료센터 강서영 임상전임강사 연구팀은 2018년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6만 4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궤련형 전자담배 사

용 경험자의 비율과 실제 금연과의 관련성을 조사, 분석했다. 궤련형 전자담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내 청소년 중 81.3%는 일반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비흡연 청소년 대비 일반 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이 궤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은 23배, 액상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청소년이 궤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확률은 44배 높았다. 두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청소년이 궤련형 전자담배까지 사용할 확률은 84배 높았다.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일반 담배만 흡연하는 청소년에 비해 지난 1년간 금연 시도를 한 확률이 48% 높았다. 하지만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사용하는 청소년이 금연할 확률은 일반 담배만 흡연한 청소년의 4%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담배 규제 분야 국제학술지인 「토바코 컨트롤」에 최근 게재됐다.

다중 내시경 결합 모듈 특허기술 이전



김준기 부교수

우리 병원이 의공학연구소 김준기 부교수가 개발한 '다중 내시경 결합 모듈' 특허기술을 광학기계 제조 기업인 (주)노스트에 이전했다.

다중 내시경 결합 모듈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생체 시료를 현미경 재물대와 결합된 다중 모듈 끝단에 위치한 다중 검

출단에서 동시에 측정하므로 생체 시료의 물리적 크기나 종류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상용현미경과 결합되는 다중 영상 시스템의 기능을 동시에 반영하므로 현미경 영상 외에 다양

한 기능의 광학 영상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미세내시경 시스템과 결합하면 실험 후 절개부위를 봉합할 수 있어 동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연결 장치 사양을 표준화해 바이오 관련 실험실에 있는 대부분의 기존 상용현미경과 결합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김준기 부교수는 "상용현미경과 미세내시경 시스템을 결합하면 생물 단위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다. 다양한 상용 영상 시스템과 접목할 수 있어 응용 가능성과 수요 시장도 크다. 이번 기술이전이 생명과학 연구 발전 및 환자 치료 기술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건강증진센터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



우리 병원이 2020년 한국 산업의 브랜드파워 건강증진센터 부문 1위에 선정됐다. 사진은 건강검진 고객이 정밀검진으로 CT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0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건강증진센터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2019년 10월부터 3개월간 시민 1만 1,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사 결과 우리 병원 건강증진센터는 K-BPI 총점 510.8점을 받아 다른 병원 평균인 334.96점을 크게 앞섰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자기선호도, 타인호감도 등 선호도 ▲가격대비가치, 독특성, 활동성, 신뢰성 등 이미지 ▲향후 이용 의향, 추천 의향, 이용편리성 등 이용가능성으로 구성된 브랜드 로열티 파워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힘내세요"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응원 이어져



기부 물품 전달식에서 김미순 외래간호2팀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의료진과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연일 구슬땀을 흘리는 직원과 의료진을 위한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3월 17일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가 샌드위치와 커피 등 간식 150인분을 선별진료소와 응급실, 당일수술센터에 전달했다.

3월 13일에는 노동조합이 155병동, 응급중환자실, 선별진료소, 응급촬영실, 감염관리실, 선별격리구역, 동·서·신관 출입구 열감지 구역 근무 직원들에게 간식 200개와 손 소독제를 전달했다.

근육세포 분비인자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 표적 발굴 및 검증



내분비내과 김범준 부교수



내분비내과 김범준 부교수는 지난해 대한골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근육세포 분비인자를 이용한 골다공증 치료 표적 발굴 및 검증'이라는 주제를 발표해 연구본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결과는 근육-뼈 상호 작용에 대한 학문적 기초를 증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상적인 골다공증 치료 표적 발굴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Q. 연구의 배경은? 골다공증이란 '뼈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이라는 의미로 뼈의 양 감소와 질적인 변화로 인해 강도가 약해져서 일상적인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침묵의 질환' 또는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불린다. 안타깝게도 뼈가 부러졌을 때는 이미 뼈 소실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통증이 생기거나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등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더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데, 뼈는 근육에 바로 인접한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에서 축분비 방법으로 골대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골다공증 치료 표적으로 발굴하려 했다. 세포 및 동물 실험을 통해 분화된 근육세포의 배양액이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의 생존을 촉진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여 결과적으로 근육세포 배양액에 골형성 촉진과 골흡수 억제 효과의 이중 효과를 가진 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현재는 근육세포 배양액에서 단백질체학 기법을 통해서 발굴한 후보인자의 골다공증 치료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

Q. 앞으로의 연구 계획은? 골다공증과 근감소증 모두 노화의 표현형이다. 따라서 기존 근골격계 연구에 추가해 노화 자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노인의 건강수명 차이는 생물학적 나이에 비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노년내과 등 우리 병원의 우수한 연구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물학적 노화를 반영하는 임상연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노화 바이오파를 발굴하고 제거기술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항노화 원천기술 개발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

Q. 연구에 대해 설명하면? 환자를 진료하면서 흥미로웠던 점은 근력이 약해지는 근감소증과 골강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나이가 들면서 같은 사람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육-뼈 상호관계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근육은 마이오카인이라고 불리는 다양한 인자를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

※ 우리 병원이 내놓은 여러 연구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연구노트'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의료진의 다양한 연구 내용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잘 이겨낼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청도대남병원에서 이송 온 코로나19 확진 환자 13명(3월 24일 기준)이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병원 간호사 5명이 3월 3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인 이곳에서 파견 근무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황혜영 대리, 김종현·좌민지 주임, 강동형·이재준 사원이 그 주인공.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간호하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 5명의 간호사를 만났다. <편집실>



강동형 사원, 좌민지 주임, 김종현 주임, 황혜영 대리, 이재준 사원(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는 생각이 들었다. 파견 근무에 관심이 있어도 각자 맡은 일이 있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지원할 수 있었다.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재준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원과 퇴원, 활력징후 측정, 호흡기 증상 확인, 약물 투여, 이송 환자 인계 등 전반적인 간호를 한다.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쓴다.

좌민지 감염격리병동의 업무가 처음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당황스럽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고, 나중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간호를 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든 부분은

김종현 레벨D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게 가장 힘들다. 전신 보호의와 장갑 등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금방 땀 범벅이 되고, N95 마스크를 쓰고 있어 숨 쉬는 것조차 어렵다. 땀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잘 들리지도 않는다. 평소라면 금방 했을 일들을 쉽게 할 수 없어 체력 소모가 크다.

황혜영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

파견 근무를 지원한 이유는

황혜영 2015년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메르스를 경험했고, 유행성감염병대응팀(EIDT)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이 같은 경험이 코로나19 환자 간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했다.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뉴스를 보며 “엄마가 저기 가면 잘 할 것 같은데? 엄마가 가야겠네!”라며 응원해준 것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강동형 대구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보며 더욱 가슴이 아팠다. 대구에 가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에도 인력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주저없이 지원했다.

좌민지 코로나19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도움이 되고 싶다

상태에서 간호를 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다. 환자가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보호구가 찢어지면 의료진 감염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주사와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를 30분 넘게 설득해야 할 때도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텐데

황혜영 ‘혹시 나도 감염되면 어찌지? 나 때문에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감염되는 거 아닐까?’ 처음에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힘들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며 배우고 숙지한 것을 바탕으로 ‘원칙대로 하자’고 마음을 다잡으니 두려움도 사라졌다.

강동형 신중 감염병이기도 하고 전파 경로도 100%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두렵다. 하지만 확진 환자를 간호하는 건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다. 환자분들이 내 가족, 내 친구일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주변 반응은

이재준 부모님께서 내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셨다. 진심 어린 걱정과 많은 격려를 해주신 신생아중환자실 선생님들과 동기들 덕분에 지칠 때마다 큰 힘을 얻었다.

좌민지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용기 있는 결정을 했다며 많은 칭찬을 해주셨다. 암병원주사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선생님들을 보고 배웠던 것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황혜영 확진 환자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퇴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잘 간호해주셔서 고맙워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어줄 때 치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다.

좌민지 “서울아산병원 선생님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무를 하면서 이곳 의료진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도 서로 격려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일을 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황혜영 가족들과 만나 외식을 하고 싶다. 지금 딸아이는 친정에 보냈고,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건강하게 잘 기다려준 딸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재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렇다.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김종현 제일 먼저 사우나에 가서 온탕 찜질을 하고 싶다(웃음). 매달 2~3번씩 사우나에 가서 피로를 풀곤 했는데 지금은 감염 예방을 위해 가지 않고 있다.

이번 경험이 간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재준 앞으로 간호사로 살면서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번 코로나19 파견 근무를 떠올리며 옳은 일,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좌민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간호한 경험은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병원 동료들과 함께하는 경험이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느낀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고 싶다.

우리 병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황혜영 우리 병원 직원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잘 극복해 왔듯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모두 파이팅!

김종현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열감지 스크리닝을 하고 있는 직원, 내원객을 안내하는 보안관리팀 직원 등 병원 곳곳에서 모든 직원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다시 내가 속한 곳에서 힘을 보태겠다.

※ 병원보는 '사람 & 이야기'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곳곳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매월 한 차례 소개합니다. 궁금한 직원, 알리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병원보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이비인후과 김지희 조교수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냄새의 종류는 약 1만여 가지다. 어린 시절 익숙하던 냄새는 잊고 있던 오래 전 추억을 기억나게 하고 좋은 향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며 나쁜 냄새는 불쾌감을 유발시킨다. 후각으로 감정의 변화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음식마다 요리법의 차이를 구분하고 맛을 느끼는 데에도 후각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람이 후각을 잃게 된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잃을 수 있다. 인생은 무미건조해질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화재나 유독 가스, 상한 음식을 느끼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동물에게 후각은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는데 갓 태어난 강아지는 후각적 신호로 어미를 찾으려 하며 후각 없이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다. 이런 면에서 후각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후각신경세포는 코 안쪽 깊숙이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이 세포가 뼈의 작은 구멍을 통해 뇌의 후각신경으로 감각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는 후각신경경을 통해 냄새를 감지한다. '노벨상 들여다보기' 코너의 이번 호 주인공은 냄새의 전달 기전을 자세하게 밝혀낸 공로로 200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액셀 교수와 린다 벅 교수이다. 두 사람은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있는 액셀의 실험실에서 교수와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함께 후각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쥐를 이용하여 코 점막에 있는 후각상피세포에 1,000여 개의 후각수용체 유전자가 있다는 공동 연구를 1991년 권위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셀」에 게재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에 인용된 횟수가 무려 1,100회를 넘었다. 이들이 발견한 1,000여 개의 후각수용체 유전자는 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전자의 4%에 해당하고 유전자 하나 하나가 냄새를 맡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후각수용체 생성에 직접 관여한다. 사람은 일부 유전자가 퇴화돼 이보다 훨씬 적은 350여 종, 침팬지는 400여 종의 후각수용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후각은 쥐나 개에 비해 덜 발달돼 있으며 후각 능력 차이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후 두 사람은 각기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의 후각수용체가 2~3가지의 냄새를 담당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후각기관이 분자 수준에서 세포 조직까지 냄새를 맡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하나의 후각수용체 신경세포는 한 가지의 후각수용체 단백질만을 발현하고 각 냄새는 후각수용체 신경세포의 독특한 조합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뇌에서 냄새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뇌가 좋은 사과와 썩은 사과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두 연구자는 동료 연구자들에게 지극히 철두철미하고 성실한 연구자들로 정평이 나 있으며 정말 중요하고 획기적인 발견이 아니면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들은 현재까지도 각자의 위치에서 후각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액셀, 벅 교수의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냄새를 감지하고 기억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후각 장애에 대한 치료는 다른 감각기관에 대한 치료보다 어려웠다. 그러나 두 사람이 냄새를 맡는 과정을 밝혀냄으로써 인간의 감각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후각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수수께끼들이 그들의 발견으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 많은 연구자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후속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많은 후각수용체들이 코 이외의 장기에서도 발현하고 있고 이들이 비만이나 대사 질환과 같은 에너지 대사 조절 등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기계가 냄새를 인지하고 사람의 후각기능을 대신할 인공감각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후각저하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며 치료 방법 또한 뚜렷하지 않다. 후각 신경의 회복을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 후각 재활 훈련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치료 효과는 약 30~50% 정도에 불과하다. 액셀, 벅 교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제 후각소실 치료로 연구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필자의 연구팀 또한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후각 재활훈련을 통한 후각저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 중이며 후각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치료 물질과 표적에 관한 동물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후각은 환상적이고, 끝나지 않는 퍼즐과도 같아요. 연구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네요.” 벅 교수의 말이다. 그를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의 식지 않는 열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후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지 않을까.

<p>리처드 액셀 (1946~) 미국의 병리학자·생화학자</p>		<p>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병리학 및 생화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내셔널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회원, 미국 예술 과학아카데미 회원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p>	<p>린다 벅 (1947~) 미국의 면역학자·신경생물학자</p>		<p>미국 텍사스 대학교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면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 신경생물학부 조교수를 역임했다. 컬럼비아 대학교 하워드 휴스 의학연구소 부연구원을 지냈으며, 하버드 대학교 신경생물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p>
<p>※ 사진 출처 : 노벨상 홈페이지</p>					

※ '노벨상 들여다보기' 코너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 소개합니다. 인간 생리의 원리를 밝히거나 의학적인 진보를 이룩한 여러 연구자의 이야기와 함께 관련 연구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전망도 공유합니다.

이전엔 몰랐던 것들



“조영원 씨를 찾았습니다!”

경찰의 전화였다. 할아버지는 남양주 집에서 한참 떨어진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 낮선 곳을 헤매다 넘어진 할아버지를 행인이 신고해 병원에 옮겼다고 했다. 할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도 잠시. 경추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다. 얼마 전 “만날 다니던 길을 깜빡했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흘러 넘긴 게 화근이었다.

그날, 그 후

영주 씨의 일상엔 늘 할아버지가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한집에 살면서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한글을 배웠고, 아플 때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에 다녔다. 무뚝뚝한 할아버지에게서 부족하지 않게 사랑을 느낀 건 아마 어릴 적 기억들 때문일 것이다. 영주 씨는 할아버지가 있는 병원에 달려가고 있었다. “앞으로 고비가 많이 올 테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죽음의 진조였다. 혼자 앓을 수도, 물을 마실 수도 없는 삶이 얼마나 길고 힘겨운 싸움인지 깊은 좌절에 빠진 순간까지도 잘 몰랐다. 아흔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건강했던 할아버지는 콧줄로만 식사가 가능했고 매일 밤 열과 씨름하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해 갔다. 한순간에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술과 재활을 오가며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할아버지의 급성기 치료 단계에서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보다 안정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할아버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꼭 한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아산병원은 그녀의 직장이기도 했다.

뭔가 다른 병원

“콧줄을 빼고 음식물을 삼킬 수 있도록 연하 2단계까지 가봅시다” 재활의학과 유종윤 교수가 말했다. “그게 가능할까요? 이전 병원에선 연하 1단계만 되어도 다행이라던데...” “퇴원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죠?” “연하 치료

를 잘못하면 폐렴도 올 수 있다던데 맞나요?” 가족들은 불안해했다. 유 교수는 “여기서 최상의 상태를 못 만들고 나가면 더 안 좋아지실 테니 퇴원 전까지 부지런히 치료해야죠.” 짧은 설명이었지만 믿음이 갔다. 서울아산 병원으로 옮기면서 가족들의 염려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73병동 생활이 시작되었다. “조영원 님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차피 할아버지는 대답도 못 할 텐데... 설마 모든 환자에게 매번 말을 거는 걸까?’ 영주 씨는 궁금했다. 다음에 들른 간호사도, 그다음 간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간호사나 할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영주 씨의 이런저런 질문에 귀찮은 내색 없이 답해 주었다. 가족은 물론 간병인까지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른 병원 간호사들은 밤중에 체위변경이나 흡인 치치하는 걸 간병인에게 미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간호사가 할 일이라면서 매번 아무지고 정갈하게 간호하더라고요. 서울아산병원이 확실히 다르네요.”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는 나날이었지만 그 사이에 재활의학팀은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를 일구고 있었다. 퇴원을 앞둔 주말에 만난 할아버지는 한 달 전과 확연히 달랐다. 살도 찌고 말씀도 많이 했다. 한쪽 팔과 다리를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입으로 식사가 가능했다 “어머머~ 이게 되네!” 가족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행복한 순간을 서울아산병원이 만들어 주었다. 영주 씨는 서울아산병원에 다닌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러웠다. 가족들도 이곳에 오길 잘했다며 영주 씨의 제안을 고마워했다.

고마워요, 모두

상태가 좋아진 할아버지는 요양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관리가 쉽지 않았다. 폐혈증과 결핵으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또다시 긴급 이송되었다. 이쯤이면 마음에 굳은살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는데 연명치료중단 동의서를 놓고 또다시 절망에 빠졌다. 이제 할아버지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보고 싶은 날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슬픔 사이에서 가족들은 마음을 정하기 어려웠다. 동의한 후에도 앞으로의 치료를 두고 고민할 때였다. 재활의학과 강민수 레지던트는 의료진의 견해에 덧붙여 보호자로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저도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워요. 마지막까지 행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걸 하고요.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는 했어도 할아버지의 삶의 질이나 정서적인 면을 챙겨 주세요.” 초조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해야 할 것을 안내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다.

환자 보호자로서 영주 씨는 할아버지를 치료해 준 유종윤 교수와 73병동 간호사, 재활의학팀에 각각 감사 편지를 적었다. “편지에 쓴 분들 외에도 정말 감사하고 싶은 분이 많아요. 몇 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환자 보호자가 되어 보니 서울아산병원이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업무, 제 직장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우리 가족을 감동시킨 서울아산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인생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용혜원님의 시『동행』의 한 구절입니다. 이곳은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 사랑시(市) 행복구(區) 동행동(洞) AMC 입니다. 이 곳에서는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동고동락하는 AMC 가족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열정과 감성 에너지로 얻은 보람

산부인과 김영탁 교수



▲ 1989년 산부인과 의료진과 함께. 앞줄 오른쪽 첫 번째가 김영탁 교수

1989년 봄. 분만장을 나오는데 '제1호 분만 의사'라는 축하를 받았다. 개원 멤버이기에 경험하는 제 미난 타이들이었다. 초창기 산부인과는 4명의 교수와 2명의 전공의로 꾸려졌다. 산과, 내분비, 중앙 세 파트로 나뉘긴 했지만 환자가 많아 중앙 파트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10년이 지나서다. 내시경 암 수술과 같은 최신 임상 술기 개발이나 항암 바이러스 백신 연구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의료진 사이에선 병원이 보장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밤새 연구하고 환자를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아갔다.

진료 외에 꼭 챙긴 몇몇 활동이 있었다. 병원보에 '메디컬유머'라는 코너를 약 3년간 연재해 직원들에게 잠깐의 여유와 웃음을 전했다. 병원 갤러리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며 환자와 보호자에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또 30년간 기우회 회장으로 평소 접하기 힘든 직원들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도 풀며 동아리 활동을 이어왔다. 비독에서 터득한 생활 자세와 지혜는 의학 연구와 진료에 적용할 수 있었다.



▲ 2006년 신관 건설 현장에서 병원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른쪽 세 번째가 김영탁 교수

2004년에는 신관 건설을 위한 병원발전위원회의 부 위원장을 맡았다. 임태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최은경, 박승일, 고윤석 교수 등과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전역의 병원을 둘러보았다. 앞서가는 병원 대부분은 환자 위주의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병원도 기능적인 행정 업무 공간 대신 희망의 벽과 쉼터, 공연 스테이지 등을 마련해 환자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2008년 5월에 문을 연 신관은 환자 우선의 병원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다.

2013년 박건춘 전 원장님으로부터 국제진료센터장 제안을 받았다. 진료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브랜드가 약해 해외 환자의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쉬움을 늘 갖고 있었다. 병원의 위치조차 모르는 외국인을 만날 때마다 세계적 병원으로 도약해야겠다는 의지는 더욱 커졌다. 각국의 대사와 부인을 초청하고 국제 이슈를 다룬 포럼을 기획하며 서울아산병원의 진가를 알렸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와 여러 나라에 해외 병원 진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내국인 환자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까지 흡수하는 것에 대한 의료진의 저항감이 컸다. 스스로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돕는 병원의 정체성이 해외 사업과 상충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기도 했다. 국내 의료 현실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

망에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다. 2016년 신관 4층에 센터를 이전하며 국제사업실로 조직을 확장했다. 해외 진출 시 직원 참여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한해 500여 명의 해외 의학자가 우리의 첨단 의술을 배우러 온다. 특히 중동 국가에서 한국과 서울아산병원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체감한다.



▲ 2015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해외 의학자들과 함께. 앉은 사람들 중 왼쪽 다섯 번째가 김영탁 교수

외부인 혹은 환자의 시선으로 병원을 바라보며 배운 것이 있다.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믿음이 당장의 수익보다 값진 재산이라는 것이다. 최선의 치료를 펼쳤음에도 환자에게 합병증이 생길 때가 있다. 한번은 해외 학회 일정을 취소하고 중환자실의 환자 곁을 지켰다. 방어적인 자세 대신 소통하며 진정성을 보이자 보호자는 "교수님, 걱정 감사해요. 어서 출장 다녀오세요"라며 오히려 나를 격려했다. 사람을 위한 감성 에너지가 모든 문제의 해결 실마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2015년 공동연구 협약을 위해 방문한 미네소타의대 연구소장의 질문을 받았다. 늦게까지 꺼지지 않는 연구실 불빛을 보며 그 원동력을 궁금해했다. 세계적인 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과 긍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990년 수해 피해로 인근 4개 병원에 분산된 환자들을 회진 다니던 순간, 2002년 의약분업 파동 때 교수협의회장으로 진료 공백을 메우



▲ 2015년 의료진, 임직원 30여 명과 무료급식 지원 후. 앞줄 오른쪽 세 번째가 김영탁 교수

려고 임상 과장들과 당직 일정을 짜던 순간, 2007년 산부인과 과장을 맡기 직전 신입 전공의가 다 그만두어 일일이 설득하며 고민하던 순간 등. 나의 과거를 돌아보니 아프고 어려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 능력 이상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긍지를 느껴왔다. 늘 바쁘고 힘든 가운데 점점 열악해지는 의료 환경을 헤쳐나가는 후배들에게 감성 에너지를 잃지 말자고, 어떤 보람이 기다리는지 다시 꿈꿔 보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 그리 옛날 일은 아닌데 정확히 언제였는지 가물거리는 기억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낡고 녹슨 물건. 그 속에 새겨져 있는 이야기는 오롯이 병원의 역사가 됩니다. '나의 역사, 병원의 역사' 코너는 직원 개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병원의 모습을 추억하며 병원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 A L A Y S I A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병원에서 온 핵의학과 카말리아 빈티 카마룰자만 전문의입니다



카말리아 빈티 카마룰자만 전문의(왼쪽)와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

Q. 서울아산병원으로 연수 온 이유는

연수 오기 전 6년 동안 핵신경학 전문의로 일해왔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핵신경학 치료 분야가 점차 확대, 발전되어가는 추세다. 그래서 핵신경학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싶었다. 서울아산병원이 고급 의학 지식을 전수받고자 하는 해외 의학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한다고 추천을 받기도 했다.

Q. 연수 내용 및 소감은

지난해 6월부터 핵의학과에서 펠로우십 교육을 시작해 임상활동은 물론 기초 연구작업에 동참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환자 관리에 필요한 최신 추적 프로그램 기반 영상 해석 기법 등을 배웠고 국내·외 학회에 참석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뇌졸중, 뇌전증, 뇌종양, 치매, 파킨슨병 환자 진단을 위한 다양한 신경촬영법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심장핵의학, 종양학, 일반 핵의학 등을 망라하는 핵의학 관련 영상 검사를 접할 기회도 많아 큰 도움이 되었다. 처음 서울아산병원에 왔을 땐 일평균 환자 수와 수술 건수,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임상 치료에만 집중하는 병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은 물론 환자 치료를

위해 늘 고민하며 연구 및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Q. 한국에서 병원 밖 생활은 어땠나

주말이나 휴일에는 고궁, 시장, 산, 박물관, 강변 산책로, 쇼핑몰, 스키장 등 서울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계절별로 다르다. 여름에는 빙수를 먹는 것이 좋았고 요즘에는 떡볶이, 호떡, 어묵을 즐겨 먹고 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보고 느낀 한국 사람들의 상대방에 대한 진실된 마음과 빨리빨리 문화, 그리고 역동성이 인상 깊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연수가 끝나고 돌아가면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배운 내용을 말레이시아 의료진에게 잘 전파할 계획이다. 이번 연수가 말레이시아 핵신경학 서비스 및 연구 개발을 더욱 확대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아산병원의 체계적인 연수 시스템은 해외 의학자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기회를 주고 친절하게 지도해주신 핵의학과 김재승 교수님과 연수 생활을 잘 도와준 국제교류팀 정경원 주임 그리고 동료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 다양한 국적의 많은 해외의학자가 고난도 의료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병원을 다녀갑니다. 병원보에서는 '웰컴투 AMC' 코너를 통해 연수 온 해외의학자들이 보고 느낀 우리 병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연탄봉사로 따뜻했던 지난 겨울

외래간호팀 김영진 사원



토요일 아침, 폭설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아름다운 날이었다. 어느 때 같았으면 소담히 쌓인 눈꽃에 취해 급히 당일 여행을 준비했겠지만 그날은 1년에 한 번 가는 연탄봉사가 있는 날이어서 마냥 눈을 환영할 수는 없었다. 눈은 쉽사리 그치지 않았고 '이런 날씨에 꼭 가야 하나?'라는 마음 속 고민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동요가 눈발처럼 휘몰아칠 때 사회복지팀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도착했다. '폭설 때문에 봉사활동 신청을 취소하는 지원자가 많지만 추위가 오기 전에 연탄이 집집마다 배달돼야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꼭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간의 망설임이 부끄럽게 느껴졌고 서둘러 집결지인 당고개역 주민센터로 갔다.

눈이 많이 쌓인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은 위험해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전달하기로 하고,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탄봉사 활동이 시작됐다. '여기에 사람이 살기는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유리창이 없는 창문에 비닐을 붙여 추위를 막아보려는 집도 있었고, 근처에 불법 쓰레기가 쌓여있어 주민들의 위생과 건강에 걱정이 되는 집도 있었다.

특히 산 중턱에 위치한 집은 연탄을 아래쪽에서 위로 전달해야 했는데 경사로에 비스듬히 서서 하다보니 몸 왼쪽과 오른쪽에 들어가는 힘이 달라 중간중간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마무리했다. 마지막 집이 가장 난코스였는데 인원 수가 부족해 팔을 쭉 뻗어 전달하는 작업을 계속 하니 팔이 후들거려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힘들 때마다 매번 '이제 그만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 추운 겨울을 고지대에서 맞을 이웃들이 생각나서 지금까지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눈이 녹으면서 진흙탕에 옷이 다 젖고 운동화는 겹겹이 물들지만 마음만은 큰 보람으로 가득 찬다.

연탄봉사를 병원에서만 하는 게 부족하게 느껴져서 지금은 남양주 봉사 밴드에 가입해 별내 지역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

다. 나눔의 기쁨을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연탄봉사에 데려가기도 했다. 아이에게 연탄을 절대 깨뜨리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더니 "공짜로 연탄 주는 건데 한 장 깨뜨렸다고 뭐라고 하는 건 나빠!"라며 울먹었다. 아이를 달라고 설득하며 "네가 연탄봉사 현장을 안 가봐서 그래. 그분들에게는 연탄 한 장이 긴 겨울을 나는 데 무척 소중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라고 말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연탄을 나르며 힘들어했지만 끝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고 기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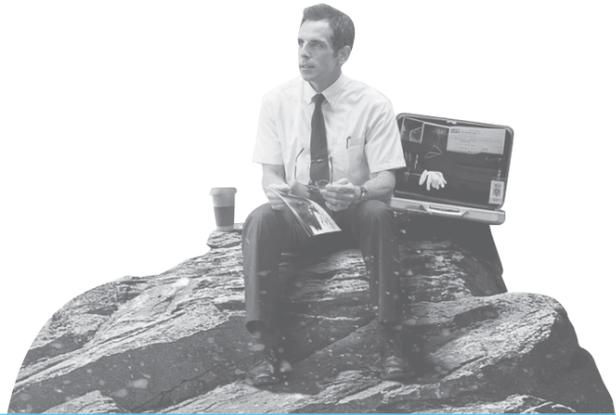
2015년부터 5년간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을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주변분들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맺으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분수에 순응하는가 한계에 도전하는가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한정현 연구원



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복무를 시작한 나는 이루고 싶은 목표와 꿈이 있었고 그만큼의 열정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일어나는 업무와 잦은 야근, 훈련의 피로에 눌려 열정은 사라져 갔고 시작할 때의 초심과 목표는 잊어버린 채 점점 현실에 안주하게 됐다. 그렇게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던 중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를 봤다. 단순히 제목과 예고편이 흥미로워서 봤지만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해주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영화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루어낸 성공이 더 값진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역설한 말이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도 계속되는 도전으로 더 높은 길로 나아가 자기 발전을 이루어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은 한계라는 벽 앞에 멈춰 서게 된다. 한계는 일에 대한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가름하는 기준인 동시에 우리 인간을 제한하는 벽이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 이르게 되면 선택의 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신의 한계에 굴복하여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도전하는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인 월터는 전자의 삶을 살다가 후자의 선택으로 바뀌어 나가는 인물이다. 「라이프」 잡지사에서 필름 인화를 담당하는 월터는 성실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이다. 그런 그가 가진 특별한 취미는 바로 '상상하기'이다. 상상 속에서 그는 주저함이 없는 도전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된다. 특히 힘든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상상하지만 현실에선 결국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 월터의 상상은 곧 그의 목표이고 이루고 싶은 꿈인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종이잡지를 폐간하고 온라인 잡지로 변화한다는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을 통보 받는다. 회사는 그에게 마지막 잡지의 표지사진을 인화하는 임무를 주는데 사진작가로부터 받은 필름에

는 표지로 사용해야 하는 그 한 장이 없었다. 사라진 사진의 단서를 하나씩 풀어 나가며 월터는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상상은 진짜 현실이 되어간다.

분수를 따르고 현실에 순응하면 무난하게 살 수 있다. 반대로 한계에 도전하면 필연적으로 시련과 고통을 겪는다. 월터는 마지막 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계에 부딪혀야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실천에 옮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의 중요한 의의가 아닐까. 우리 사회는 안정을 지향하지만 변화가 있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월터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현대인들은 매일 월터처럼 상상하지만 반복되고 바쁜 일상에 지쳐 굳게 다짐했던 마음도 잊어버린다. 월터가 한계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그 동안 성실하고 묵묵히 본인의 일을 해온 덕분에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하루하루 노력과 정성을 모으다보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믿는다. 상상만 하면 단순한 꿈이지만 노력하고 실천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되듯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감독 : 벤 스틸러
배우 : 벤 스틸러, 크리스틴 워그, 손 펜
장르 : 모험, 드라마, 판타지
개봉 : 2013. 12. 31
(재개봉: 2017. 12. 27)



인사팀 박기홍 사원입니다



※ 병원보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AMC 루키 코너를 진행합니다.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고 싶은 동료들의 추천 혹은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고 있는 업무 일반직 인사 담당자로서 정규직 공채와 인사 발령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인사팀 업무 특성 상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로 만났던 분들을 나중에 직원 대 직원으로 만나고, 가끔 저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실 때 큰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럴 때마다 앞으로도 우리 병원에 지원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으로서 더 친절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일하면서 힘든 순간 인사와 관련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왔을 때 불가하다고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사정이 이해는 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퇴근 후 일상 회사 동료와 친구들과 어울리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술을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두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올해부터 정규직 인사 업무를 맡게 되면서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정규직 공채를 통해 1년에 600명 이상을 채용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우리 병원을 이끌어 갈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달의 레시피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주꾸미 요리 주꾸미 샐러드

열량 240Kcal, 탄수화물 16g, 단백질 21g, 지방 11g (1인분 기준)
샐러드 재료 주꾸미 2~3마리(75g), 밀가루 1큰술, 채소 총 100g(양상추, 치커리, 케일, 적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2개(10g), 견과류 총 10g(아몬드, 호두, 캐슈넛), 메추리알 30g, 닭고기 20g
과일 드레싱 재료 사과 1/4개(50g), 블루베리 3알(10g), 물 1/2컵



- 1. 주꾸미의 내장, 먹통, 이빨을 제거한 뒤, 밀가루 1큰술을 넣고 문질러서 깨끗하게 씻는다.
- 2. 주꾸미를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친다.
- 3. 각종 채소와 방울토마토를 깨끗한 물에 씻고 먹기 좋게 준비한 뒤에 기호에 따라 원하는 토핑(견과류, 삶은 메추리알, 닭고기 등)을 준비한다.
- 4. 데친 주꾸미와 각종 재료를 한 그릇에 담아 준비한다.
- 5. 사과와 블루베리, 물을 넣고 믹서에 갈아 소스를 만들고 주꾸미에 곁들여 먹는다.
*기호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고 소스를 만들어도 좋다.

🦑 주꾸미 손질법(내장, 먹통, 이빨 제거 TIP)
1. 머리에 손가락을 넣고 살짝 뒤집어 내장과 먹통을 제거한다.
2. 다리 뒤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나온 이빨을 가위로 잘라 제거한다.



※ 자료 제공 : 영양팀 김성희 사원

생애 첫 독립, 이것만 확인하세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독립할 때는 첫 홀로서기라는 설렘과 함께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도 찾아온다.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의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고,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독립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편집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을 할 때 큰 돈이 오가는 만큼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자.

1 신분증·등기부등본 확인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이 맞는지 먼저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을 체크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대출을 많이 끼고 있는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소유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보증금 대출 시 임대인 사전 동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으려면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계약을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거부할 경우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3 현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

전세 계약 시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안전하다. 소유주 본인의 통장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 전세 계약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

4 대리인 입증 서류 확인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물론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계약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5 계약 만료 시점 확인

보통 전세 계약은 1년 또는 2년이다. 계약 기간을 1년 이하로 진행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사항에 넣으면 된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하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 계약을 한 뒤 법원이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매달 월급을 받자마자 빠져나가는 월세. 주거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자.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 아래의 세대원
- 3)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
- 4) 임대 주택이 등기상 주택으로 표기



2 신청 방법

월세는 연말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다. 월세 납입 증명서는 무통장 입금 내역, 계좌이체 확인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임대 계약 후 전입신고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포장이사 주의사항

이사업체의 도움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1 허가 및 보험가입 여부 체크

화물자동차 운송선사업 허가를 받은 검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유명 이사업체라도 일부 가맹점은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 계약 내용 확인

업체와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 운반 차량 종류 및 대수, 작업 인원, 서비스 수준(정리정돈 수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어컨, 가구조립, 청소) 등을 계약서 상에 명확히 기재해 계약 내용을 업체와 소비자 쌍방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귀중품 별도 관리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가의 물품 및 귀중품은 개인이 별도로 챙겨야 한다. 중요 물품은 목록을 작성해 차후 분실 및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파손 우려가 있는 품목은 사전에 업체 측에 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4 피해 발생 시 주의사항

이사 도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포장 이사업체의 현장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물품파손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업체와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무야 나무야

봄을 알리는 벚나무

분류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
학명 Prunus, sect Cerasus
원산지 일본, 제주



봄이 되면 우리 병원 동·서·신관 공원이 벚나무 꽃으로 물든다. 신관 개원 시 심었던 왕벚나무, 산벚나무, 겹벚나무, 능수벚나무 4종의 벚나무가 460주나 된다. 그 자태가 다른 지역의 벚꽃 축제 못지않게 화려하다. 벚나무의 개화시기는 대개 3월 말에서 4월 초쯤인데 우리나라에서 공식 개화를 인정하는 시기는 종로구 송월길에 있는 왕벚나무를 관측해 한 개체에서 벚꽃이 3송이 이상 피었을 때이다. 벚나무는 6월에서 7월 사이에 적색에서 검은 색으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날 것으로 먹기도 하고 술을 담그기도 한다. 벚나무의 꽃말은 '정신의 아름다움' '순수한 매력' '순결' '정신과 교양'이다. 목재의 재질이 균등하고 너무 딱딱하거나 무르지 않아 고려 시대에 팔만대장경 목판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효종이 벚나무의 껍질을 각 궁의 재료로 사용하려고 우이동에 심으라 명령을 내린 적도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명 벚꽃 축제가 모두 취소됐다. 아쉬운 마음을 원내 산책길에서 만나는 벚나무로 달래보는건 어떨까.

※ 자료 제공 : 시설팀 함종덕 직원

※ 병원보는 '나무야 나무야' 코너를 통해 우리 병원 공원을 산책하며 만날 수 있는 나무와 꽃, 풀을 소개합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지금 대한민국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전성시대다. 하지만 through에 '~을 통해'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너는 나랑 잘 통해'를 'You are through with me'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때 through는 '관계나 사용이 끝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럴 땐 'Good match'를 쓰자.

너는 나랑 잘 통해.

You are through with me.

We are a good match.

Let's Talk

- A I need to type some medical records. 의무기록 입력할 게 있어.
B Make sure to log off when you are through. 컴퓨터 다 쓰면 종료하는 거 잊지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 혼자 카페에 가는 '혼카족'이 전보다 많아졌다. 이처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셀카를 찍어 인증샷을 남기고 이를 SNS에 올리는 것도 일상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참, 셀카는 콩글리시니까 '셀피'라고 하자.

셀카 찍고 있었어.

I was just doing a selca.

I was just doing a selfie.

Let's Talk

- A Why were you in the cafe for so long? 카페에서 왜 그렇게 오래 있었니?
B Ah, I was just doing a selfie. 아, 셀피 찍고 있었어.

• Written by 아카데미운영팀 서영미 글로벌전문강사

※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영어 표현 중에 정착 외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통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공유합니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사, 동료 직원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독자엽서를 통해 편집실로 전달된다. 독자들의 목소리 일부를 병원보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소화기내시경팀 정혜숙 대리 '네가 모르는 76일간의 이야기' 글을 읽고 의료수준이 열악한 네팔에서 온 1세 아기가 우리 병원의 도움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감동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영상의학팀 박화자 과장 '노벨상 들여다보기' 코너를 통해 우리 몸이 어떻게 산소 농도를 감지하고 반응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외래간호팀 국혜지 차장 영상학과 김미영 교수님의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글이 인상깊었습니다. 히말라야 산행은 방송으로만 봐서 멀게만 느껴졌는데 교수님께서 직접 히말라야에 다녀오신 후기를 읽고 결코 쉽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을 텐데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의학팀 전승룡 대리 업무 중 생각 없이 썼던 영어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굿바이 콩글리시' 코너를 즐겨 보고 있습니다.

암병원간호2팀 김현아 과장급 '나의 역사, 병원의 역사' 코너에 소개되는 선배님들의 병원 발전을 위한 활동과 노력을 읽고 나면 힘든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 또한 병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AMC 파이팅!

외래간호팀 김영진 사원 우리 병원이 14년 연속 가장 존경받는 병원에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뿌듯했고 맡은 업무에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독자를 위한 선물

- 스카이라운지 에메랄드 코스 식사권(160,000원) 정지훈(방사선종양팀) 스카이라운지 이용권(50,000원) 구상하(외과간호2팀), 양성식(진단검사의학팀)
베즐리 이용권(30,000원) 전승룡(영상의학팀), 정혜숙(소화기내시경팀)
원내 식당 이용권(30,000원) 김원경(울산의대), 박은진(외래간호1팀)
밀탐 이용권(20,000원) 김미선(내과간호2팀), 유지애(진단검사의학팀)
밀탐 이용권(15,000원) 국혜지(외래간호1팀), 신화정(연구지원팀), 최금주(보안관리팀)
고급 수건 세트 김수연(암병원간호2팀 72유닛), 김재은(핵의학팀), 박화자(영상의학팀), 윤혜린(핵의학과), 한인성(울산의대)

지난호 정답



제624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사랑시·행복구·동행동 AMC - 네가 모르는 76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인사팀 박기홍 사원이 추천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